

김해 「복」식품 홍순규씨를 찾아서

97년 2월 13일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의 「복」식품(대표 홍순규)을 찾아가는길.

시로 승격된 지역이지만 큰길을 벗어나 산아래의 경사면 계단식은 사이로 구불구불 길을 따라가고 있노라니 곳곳에 낮은 농촌풍경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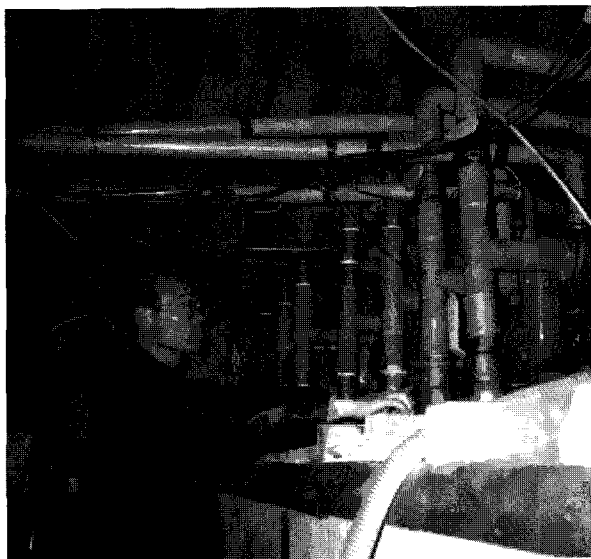
홍순규씨의 숙주나물 재배장은 그런 경사면의 중간쯤에 그저 적당한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1,400평의 대지에 각각 60평 크기의 재배장 및 부속시설등 7동이 무질서한듯 하지만 작업동선을 고려해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1954년 경남 진주에서 4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대농인 집안덕에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저 마음좋고 또래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홍사장은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담을 쌓게 되었고 부산에서 중학교 졸업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고향선배의 권유로 콩나물 재배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받았던 봉급이 1,500원, 지금부터 27년전의 일이다. 그후 3년여 동안 봉급이 3만원까지 오르도록 일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 직접 물을 쥐야 했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군복무를 마치고는 잘못자고 힘든 콩나물재배장 일이



싫어서 창원 공단에 취직해 2년여를 다녀 봤지만 콩나물과의 인연이 깊었기 때문일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젠 본격적으로 콩나물재배업에 뛰어들어 직접 자영하게 되었다.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소자본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이 업에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그저 사람좋은 웃음으로 되짚어보고 시작한것이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다시 일어섰지만 3번이나 실패하는 쓴 맛을 보았다.

원래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 탓에 사업이라는 냉정한 세계가 잘 들어맞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홍사장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어금니를 악물



고 친지들이 많은 부산을 떠나 경기도로 재배장을 옮겨 6년여를 악착같이 일해서 재미도 좀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시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실의에 차 있을무렵 부산의 사촌형님이 운영하는 콩나물재배장에서 몇개월 일을 하게 되었고 사촌형님 도움으로 지금의 김해 이곳에 자리를 잡아 콩나물재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촌형님 조언으로 숙주나물로 바꾸어 초창기에는 1톤 트럭에 15통정도 싣고 출하했는데 그의 꿈은 트럭에 한차 가득 채워서 출하해 보는 것이었다. 홍사장은 마음을 다잡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다. 남이 한숨잘때 반숨만 잤고, 거래처에는 신용을 철저히 지켰다. 이것이 그동안 거듭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다행이 주위가 황새봉을 비롯한 야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물이 좋았다.

220m를 파내려간 지하수는 너무도 깨끗하고 양도 많아서 처음엔 생수공장을

해볼까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 덕분에 신선한 나물을 생산할수 있었고 그의 소망대로 한차가득 나물을 출하하게 되었으며 곧 차두대 분량을 출하하게 되고 그 다음엔 더큰 2.5t 트럭에도 가득채워 출하해서 현재는 종업원만 3명이고 자동살수시설과 보일러, 냉온수탱크, 냉동냉장창고 등을 갖추고 하루 녹두 사용량 6~7가마인 이곳에서 자리잡은지 5년여만에 이룬 결과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촌형님(홍순열)의 도움과 대한두채협회 부산지부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지금도 시작당시에 납품처를 양보해 준 지부 회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못하고 언젠가는 나도 베풀고 살기를 다짐해 본다

협회나 정부에 바라고 싶은것은 녹두도 국내생산이 별로 없어서 콩처럼 정부에서 수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약사용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단다.

홍사장 부인께 월수입을 물었더니 생물이라 손해볼 때도 있고해서 수입이 불규칙하지만 노력한 댓가는 나온다고 말해서 그런대로 만족한 모습이었고 항상

부인의 도움이 크다며 부인을 바라보는 홍사장의 눈빛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해 보였다.

